2014년09월03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④	②	⑤	⑤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④	⑤	①	②	②	⑤	②	③	①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고난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②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③ 선악의 분별을 넘어서는 절대적 경지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❹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⑤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2.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인간이 생명체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희생된 생명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이 인류의 생존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도덕의 명령은 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언 명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책임 의식을 [㉠]

❶ 미래와 전 지구적 범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② 행위의 직접적 결과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각 개인의 삶의 개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④ 기술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인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⑤ 자신의 독립된 자아에 대한 주체 의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 을: 누구나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마음[所不忍]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 인이다. 누구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所不爲]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이르는 것이 의이다.

① 인의가 본래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② 인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❸ 인의가 소박한 본성이 상실되어 나타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인의가 결과의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⑤ 인의가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4.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신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운동에 의한 증명, 원인에 의한 증명, 필연적 존재에 의한 증명, 완전한 존재에 의한 증명, 우주 질서의 창조자로서 지적인 존재에 의한 증명으로 불릴 수 있다.

① 신은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 존재이다.

② 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다.

③ 종교적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성된다.

❹ 덕을 쌓아도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⑤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인 영원법은 자연법으로부터 나온다.

5. 다음 현대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

① 가상의 상황에서 보편적 합의를 위해서는 동정심이 필요한가?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재화의 차등 분배보다 선결 과제인가?
③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④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의 요건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⑤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6. 갑, 을은 조선 시대 유학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을 겸하지 않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성(性)에는 인의예지신 다섯 가지가 있을 뿐이고, 정(情)에는 희로애구애오욕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다. 사단은 선(善)한 정의 별칭일 뿐이다.
> 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다르듯이 정에도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만 홀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하겠는가?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하는 것이다.

〈보 기〉
ㄱ. 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ㄴ.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인가?
ㄷ. 사단과 칠정은 모두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인가?
ㄹ.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는 감정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쾌락에는 질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그 차이는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다. 쾌락을 향유하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질이 낮은 쾌락을, 품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질이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 을: 도덕은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해지고 있다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① 갑은 쾌락의 질은 쾌락의 양에 비례한다고 본다.
② 갑은 쾌락의 질적 차이에 근거하여 공리의 원리를 부정한다.
③ 을은 지식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④ 을은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불변의 진리를 추구한다.
⑤ 갑, 을은 도덕 판단이 행위의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8. (가), (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다.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격 있는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
> (나) 시민들의 선호는 변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이 중요하다.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심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① (가)는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정책 결정에서 정당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가)는 (나)보다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나)는 (가)보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가), (나)는 합리적 공론보다 이미지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간을 아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간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을: 지혜의 덕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① 갑은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❷ 갑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지성적 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을은 영혼의 탁월함만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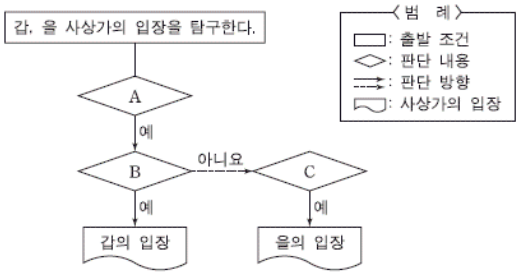
⑤ 갑, 을은 도덕적 삶에는 시민으로서의 훌륭한 삶이 포함된다고 본다.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덕과 악덕은 그것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만 그 차이가 확정될 수 있다. 덕에서 발생하는 호의적인 인상에서는 시인(是認)의 감정을, 악덕에서 발생하는 거북한 인상에서는 부인(否認)의 감정을 느낀다.
> 을: 유용성의 원리는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도덕 규칙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이 도덕 규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나)



〈보 기〉

ㄱ. A: 도덕에서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는가?
ㄴ. B: 감정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근거인가?
ㄷ. C: 도덕 규칙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가?
ㄹ. C: 도덕 평가에서 관련된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가?

①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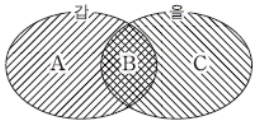
② ㄱ, ㄹ

③ ㄷ, ㄹ

❹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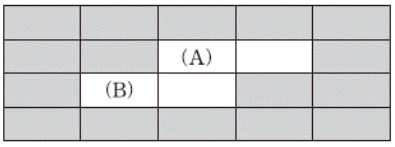
(가)	갑: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輕重)을 구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를 우선해야 하고,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 을: 앎[知]은 실천[行]의 시작이고, 실천은 앎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실천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 실천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
(나)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마음의 안과 밖에 모두 이(理)가 존재한다.
ㄴ. B: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한다.
ㄷ. C: 도덕적 앎[知]은 도덕적 실천[行]과 일치해야 한다.
ㄹ. C: 격물(格物)이란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❹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가) 사상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현실을 고통이라 자각하고 고통의 원인을 잘 알아 끊어 버리며,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하여 바르게 수행한 사람은 험난한 어려움을 건넌 현명한 성자요, 성인(聖人)의 깃발을 바로 세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나)	 [가로 열쇠] (A): 지나침[過]이나 모자람[不及]이 없으며,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뜻하는 유학의 용어 (B): 맹자가 주장한 덕치의 이상으로서, 패도(覇道)와 대비되는 정치. ○○ 정치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생명의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하여 절대자에 귀의하려는 것이다.
② 타인의 입장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루어 헤아려 보는 것이다.
③ 외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 것이다.
④ 사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❺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13.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저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시장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을: 저는 실업, 불황, 공황 등의 문제들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합니다.
병: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❶ 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유 재산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②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④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 경쟁이 장려되어야 한다
⑤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화합해야 한다

14. 갑이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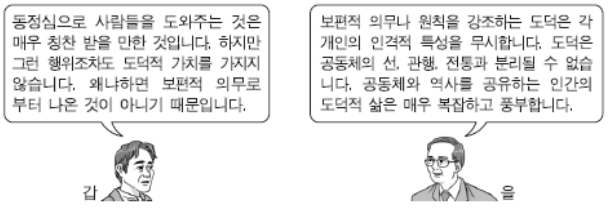
> 갑: 저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시장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을: 저는 실업, 불황, 공황 등의 문제들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합니다.
> 병: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보 기〉

ㄱ. 국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한다.
ㄴ. 공유제와 국유제의 혼합이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을 무시한다.
ㄷ. 시장의 자기 조절을 통한 공익 창출 기능을 낮게 평가한다.
ㄹ.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시장 경제의 원동력임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❷ 갑은 행위자의 의지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로 본다.
③ 을은 도덕적 삶에는 행위자의 성품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일한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실천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1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국가는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가 되는 죽음과 공포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설립하는 공동체이다.
> 을: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대립을 극복한 최고의 인륜이자,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결합된 절대정신의 구현이다.

① 갑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기심에 의해 행동한다고 본다.
② 갑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인륜을 도덕과 법의 변증법적 발전의 최고 형태로 본다.
④ 을은 개인이 국가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본다.
❺ 갑, 을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굽은 나무는 도지개를 대고 불에 쬔 뒤 곧게 펴지며,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갈고 난 뒤 날카로워진다. 사람의 본성도 악하니 스승의 가르침[師法]이 있어야 바르게 되며, 예의(禮義)로써 지도해야 잘 다스려진다.
> 을: 오리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여 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아픔이 따른다. 본래 긴 것은 잘라서는 안 되고 본래 짧은 것은 늘여서는 안 된다. 인위[人]로써 자연[天]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예의(禮義)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ㄴ. 상벌(賞罰)로써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ㄷ.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교화(敎化)를 통해 인간 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와 무관한 존재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상호 간에 빚을 졌으며 도덕적으로 연관된 존재이다. 즉 우리는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공동의 기억을 떠안은 사람이다.
> (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에게 자유는 강제와 속박이 없을 때 가능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불가침의 권리인 자유는 공동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침해될 수 없다.

① (가)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본다.

② (가)는 공동체의 선은 개인의 선의 총합이라고 본다.

❸ (나)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한다.

④ (나)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시민의 연대와 희생을 중시한다.

⑤ (가), (나)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19. (가)를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ㄱ), (ㄴ)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떤 사람은 선(禪)을 숭상하여 교(敎)를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교를 숭상하여 선을 비방한다. 이들은 모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임을 알지 못한다. 미혹을 깨치는 것이 돈(頓)이요, 평범을 넘어서 성(聖)을 이루는 것이 점(漸)이다.
(나)	㉠ _____. 그러면 단박에 깨닫게 될 것[頓悟]이다. ㉡ _____. 그러면 오랜 습기(習氣)가 제거될 것이다.

	㉠	㉡
①	본성의 참모습을 돌이켜 보라	정혜(定慧)를 함께 수행하라
②	정혜(定慧)를 함께 수행하라	만물이 불변함을 깨우쳐라
③	절대적 지혜를 관조하라	실체인 자아를 성찰하라
④	실체인 자아를 성찰하라	점진적으로 수행하라
⑤	점진적으로 수행하라	일심(一心)을 깨우쳐라

❶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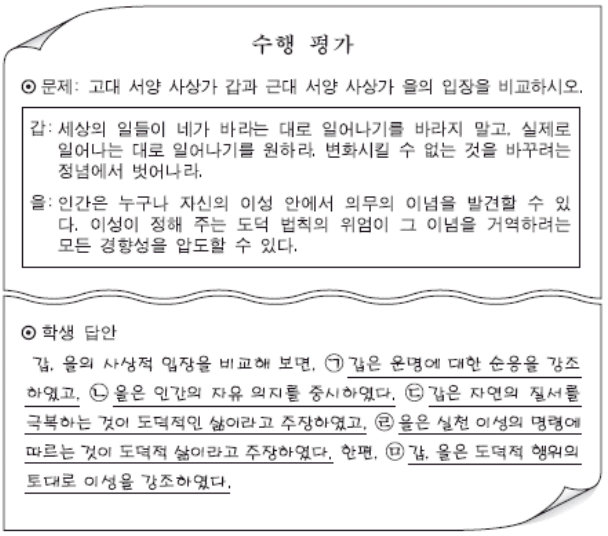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2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ㄱ)

② (ㄴ)

❸ (ㄷ)

④ (ㄹ)

⑤ (ㅁ)